

보 도 설 명 자 료

('19. 9. 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재가동 승인 후 원전 정지는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

(매일경제 9.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재가동 승인 후 원전 정지는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

◇ 9월 9일 매일경제 <원안위 재가동 승인후 원전 정지사고 잇따라>
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 내용

- ☐ 올해 재가동 승인 뒤 멈춘 원전은 한빛 1호기(5.10), 한빛 2호기(1.24), 신월성 2호기(9.6)임
- ☐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여파로 가동 원전의 안전한 운영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올해 재가동 승인 뒤 원전이 정지된 사건과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함
- ☐ 원안위 및 한수원에 따르면,
 - 한빛 1호기(5.10) 사건은 원안위에서 밝힌 바(6.25일자 보도해명)와 같이 원전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한수원 자체 절차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,
 - 한빛 2호기(1.24) 사건은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수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하였기 때문(2.15일자 원안위 보도자료)이며, 신월성 2호기(9.6) 사건은 현재 규제기관의 원인 조사가 진행중임

※ 문의 : 원전산업정책과 최광준 서기관 / 김진상 사무관(044-203-5296)